

오순절 후 스물두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22ND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0년 11월 1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485 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새 366)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4 번 요한복음(jhn) 1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히브리어 (Hebrews) 13:9-16 금종각 집사

설 교 Sermon “영문 밖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김일선 목사
(To Christ Outside of The Camp)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희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18 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새 528)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지금의 시대를 바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보이는 것과 세상의 물질을 향할 때가 많았고,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을 감추기에 급급했으며,
그릇된 세상적 욕망을 합리화시키려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아직도 우리 안에 가득한 죄악된 생각과 거짓된 말과 그릇된 행실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다시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거짓없는 진실한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벧전 4:7)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러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한글개역 히 13:13)

“Let us, then, go to him outside the camp, bearing the disgrace he bore.”
(NIV Hebrews 13:13)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1/1 (주일)	11/2 (월)	11/3 (화)	11/4 (수)	11/5 (목)	11/6 (금)	11/7 (토)
왕하	왕하14	왕하15	왕하16	왕하17	왕하18	왕하19	왕하20
딤후	딤후4	딤후1	딤후2	딤후3	문1	히1	히2
호	호7	호8	호9	호10	호11	호12	호13
시	시120-122	시123-125	시126-128	시129-131	시132-134	시135-136	시137-138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11/4 오후7:30)	“서원과 서약” (민 30:1-16)
토요 새벽기도회 (11/7 오전6:30)	“나의 눈을 밝히소서” (시 13:1-6)

지난 주일(10/25) 말씀

“슬기로운 생활신앙” (히 13:1-8)

오늘 본문(히13:1-8)은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갈5:6)이며, 또한 ‘살아있는 믿음(Living Faith)’이기 위해,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슬기로운 생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첫째, ‘슬기로운 생활신앙’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 사랑해야 하고 (Continuation, 히13:1-5), 2)둘째,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믿고 신뢰하며 (Confidence, 히13:6), 3)셋째, 참된 믿음의 본을 좇아야 하겠습니다(Chase, 히13:7-8).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부분의 권면은 다 명령형(Imperative)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우리가) 해도 그만이고, 하지 않아도 그만인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실천하고 따라야만 하는 주님의 명령이며 권고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진실하다는 증거가 되며, (또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서로 한결같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으로서, (본문) 8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며,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슬기로운 생활신앙’을 위해, 우리는 1)계속해서 사랑하며 2)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더욱 믿고 신뢰하며, 3)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의 본을 좇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로서, 우리 역시 누군가의 좋은 동행이 되어주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